# 죄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

## (시편 130:1~8)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
다소 과격한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대표적으로 꼽은 것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죄사함 받았으면 자녀 양육하지 말자, 죄사함 받았으면 사업하지 말자,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까지 해오던 중요한 일 등을 하지 말자'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도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목적과 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32년 전 쯤의 일을 회상해봅니다.
제가 장로회신학대학 신학과 3학년 과대표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다른 신학교들도 그렇겠지만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을 빌려서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강사를 선정하면 몇 개월 전에 강사 섭외를 하고 학교에서 인준해줌으로서 부흥회가 준비됩니다.
과대표로 당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시의 설교집에 사인을 해주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로 부흥회를 하면 좋겠

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저의 관심은 학교의 수업과정과는 상관없이 불교의 금강경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을 17번 정도 읽고 금강경을 13번 정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강경과 요한복음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빌립과 대화하시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가 되신 상태를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구원받은 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쁨의 내용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기쁨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데 이 사랑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침투되어 연합된 상태가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해서 보았던 금강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불교의 금강경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깨우침을 얻어 부처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중생들을 향해 관계를 갖지만 해탈의 내용 자체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없습니다. 단지 독립적 인격의 완성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곽선희 목사님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근원적 내용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는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별로 설명도 없으시고 저의 말을 지나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한은 어찌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데모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데모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라 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기억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300~400명 성도를 모시는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정작 구원의 내용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구원의 조건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로서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접근해 가지 않는다면 죄사함의 참 의미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시는 시편에 있는 일곱 편의 참회 시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루터 선생께서도 좋아하셨던 시편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깊은 곳에서’라는 말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까마득한 심연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죄의 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의 현실이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심연과 같은 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어떤 경위나 계기로 인해 이 시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자는 자신의 죄의 깊음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 죄의 심연에서 빠져나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로 다가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런 심연과 같은 깊은 죄악으로부터 나온 열매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에는 목적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죄사함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죄사함 자체를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곧 주를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연합하시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 됨에 초청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실 정도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죄사함인 것이기에 죄사함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오늘 제목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서 돈 벌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돈 번다'라는 말에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만족하겠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합법적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게 돈을 벌지라도 그로 인해서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모범 시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몹쓸 짓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의 공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가족과 별의별 세상의 가치들을 집어넣어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색깔로 지음 받았던 마음은 얼룩지고 찌들고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김치는 깨끗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얀 실크 블라우스 위에 놓인다면 모두가 다 더러워집니다. 서로가 깨끗했으나 붙으면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기는 순간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루고 첫 번째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또는 첫 번째로 배우자나 자녀

를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 애인을 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승진을 담았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세상 가치를 더 우선적인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은 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깨달아 절규했고 그것을 깊은 심연에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외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등지기를 즐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더럽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인 하나님 경외 즉 하나님과의 연합과 연결을 위해서는 죄사함은 필수입니다.
'경외'는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함이 경외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공포입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경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죄사함을 일회적인 행사로 여겨왔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라고 박수치며 노래한 후에는 세상으로 나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여기고,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돈으로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삶에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합니다. 자녀가 형통해야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몰입합니다. 이것이 죄이기에 죄사함 받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행위가 범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난 말씀에서 십계명에 대해 설명드릴 때에 첫 계명이 지켜질 때에 나머지는 열매로 맺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첫 계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이 첫 계명이 지켜질 때에 나머지 아홉 계명은 자연스레 열매 맺혀지게 됩니다. 반대로 첫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계명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본문의 5~6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카투사로 복무할 때에 1년 반 동안 헬기를 정비했고, 나머지 1년 반은 다른 부대로 옮겨서 트레이닝 룸에서 작전과 훈련계획을 짰습니다. 카투사도 보직에 따라서는 일반 보병들과 함께 야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3~4월 봄에 야전을 하는데 참가한 동료들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3~4월인데도 새벽에 보초를 설 때에 얼마나 추운지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카투사는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밤새 보초를 서다보면 냉기가 온 몸에 침투해서, 해가 뜨기 직전에는 너무나 추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파수꾼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얼른 해가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심정으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은 죄입니다.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립지만 죄 때문에 갈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돈이 벌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 없으며 죄 사함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녀의 형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자녀의 형통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재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됨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죄는 치워야할 방해물입니다.
이 죄가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흘러갑니다. 돈 벌어서 기뻐하려 하고, 자식 잘되기를 기뻐하려 하고, 건강해서 기뻐하려 하고 승진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예배당이 커야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아는데도 마음은 자꾸만 세상을 향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는 동안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는 말은 곧 말씀 안에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은 돈을 벌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돈이 목적이 된다면 죄사함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

기쁘고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만족하고 기쁜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기쁘고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부모라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의 상태에서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러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남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젖혀두고 이 세상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온갖 못된 짓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마시실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총을 먹고 마시게 하는 샘물입니다. 십자가를 가지면 다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나면 이제 삶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돈 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돈에 관계된 일을 하실 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나를 장갑삼아 관계하십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니다. 내가 돈 벌어 기뻐하려 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워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는데 승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연합에 전력하는 자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십자가를 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역사이며, 유전죄를 억제하는 역사이며, 하나님과의 연결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유전 죄의 활성화를 십자가로 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늘 샘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세상일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